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8호 【루게 제23405호】 주체100(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이 28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선행부문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의 탄전들을 찾으시며 탄부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기념촬영에 함께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드레 이 석탄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므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는데 참가케 이바지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선군사상의 창시자 김일성주석 국제사회 계가 높이 칭송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려 우리 민족의 당국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강성번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격찬하고있다. 네발신문 《아르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과업이 일체를 쳐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는것이었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이러한 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만 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조선에서는 주석의 군사주의사상, 선군사상에 의하여

당과 국가가 창건되기에 앞서 군대가 창건되었다. 메히프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블레멘은 총대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있다. 이 원리를 구현한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있는 선군사상이다. 조선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여왔다고 찬양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선군사상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전반적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선군혁명리

론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그를 실천에 구현하시였다. 선군혁명명도가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미제에 의해 자주권을 상실당했을것이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모니터》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김일성명도자에 의하여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에 펼쳐진 현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라시던 녀일이 그대로 꽃핀것이라고 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태양절 기념 준비위원회 이딸리아에서 결성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1일 이딸리아 로마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이딸리아의 각계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사상사와 반제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호모를 받고계신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시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력적인 사색과 끝없는 헌신으로 고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 간고한 조선혁명과 복잡다단한 세계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분명한 속에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위업실현에서 위대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봄철 영농전투에 고무추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 봄철 영농전투에 힘있게 벌어지는 데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황해남도에서 농사를 잘지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대중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판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얼마전

봄같이 시작되는데 맞게 트랙도르운전수들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도적인 열성자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모임에서는 농촌기계화초병이 된 영예를 안고 기대의 만가뚝을 보장한 트랙도르운전수들의 경향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농업생산에 기여한 부림소관리공들이 평가되었다. 이어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일군들과 농업생산의 주요부문을 맡고있는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보다 책임적으로 하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한 열성자모임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난 시기 농촌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대중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판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얼마전

황철소시 중량레루생산공정의 기술개건 적극 추진

황철제련합기업소에서 중량레루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중량레루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고나가기 위하여 중량레루를 높여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장부의 일군들은 현행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들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업으로 레루강조제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질 높은 레루강조제생산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새로운 주체제련생산기지건설장에서 원일혁신의 불바람이 새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초고전력전기로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용해시간과 전력소비를 훨씬 줄일수 있는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합리적인 용해공정을 확립하여나가고있다. 이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에 의하여 제품당에는 레루강조제가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의 생산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부터 중량레루생산실수율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있다. 길이가 긴 레루를 균일하게 가열하기 위한 가열로개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현재 연합기업소에서는 편관단위들과의 협동작업으로 생산물의 실수율도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의 기술가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표준조각법들을 새롭게 작성하고 기공품을 개인시키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고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하면서 설비보수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어렵없이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개명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건의 불바람을 더욱 새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한 경 철

화력발전소들과 금속, 화학, 경공업공장들에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과감한 생산돌격전으로 새로운 위훈 창조

은 나라의 관심속에 석탄공업대회를 진행한 소식에 접한 각지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당이 제시한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결집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과 총동원력을 과감히 발휘하고 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의 탄광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탄광들에서 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1, 4분기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여러 탄광들의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에서 높이 세운 3월계획을 수행하는 단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철, 주체비료생산기지와 경공업공장들,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오는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

원입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은 높이 세운 1, 4분기 석탄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석탄공업성과 각지 탄광연합기업소들의 일꾼들은 중심고리들을 옮겨 정하고 경제작전을 짜고 드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 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대장장이 없었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을 집중중추로서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의 주요탄광들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 정, 새 구역조업대상굴진을 앞세워나가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력을 총집중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탄부

들 모두가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고 있다.

각지 탄광들에서 1, 4분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 수령님과 영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기세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화포, 톱질, 립석탄광의 생산능력확장장사를 적극 다그치고 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이 탄광들에 전망이 좋은 새 채탄장을 마련하고 채굴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2, 8 직 동 청 년 탄 광 에 서 는 영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 정, 새 구역조업대상굴진을 앞세워나가고 있다. 이 와 함 께 굴진소

로 동 계 급

비약의 승결 기쁨을 진동탄전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2, 8직동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은 늘이는 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생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탄광의 책임일꾼들은 영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탄부들속에서 화신식정차사업을 전진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그들 모두가 영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욱더 고구추동하고 있다. 특히 일꾼들은 강대국에 당겨가 생산실적을 극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석탄증산을 결성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일꾼들은 강대국에 당겨가 생산실적을 극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마련해놓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해나감으로써 일정계획을 1.5배로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11명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막강마당에서 결사투쟁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이곳 채탄중대들의 탄부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초급일꾼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림없이 짜고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1명, 12명, 청년경의 탄부들도 영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욱더 고구추동하고 있다. 특히 일꾼들은 강대국에 당겨가 생산실적을 극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3명, 5명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기쁜 탄발들을 타고있어 석탄증산을 높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3명, 5명의 탄부들은 소공품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예전성있게

고속도굴진을 힘있게 내밀어 이룩한 성과

100여개 채탄장을 새로 마련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 떨쳐나선 석탄공업성아래 각지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고 석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아래 각지 탄광들에서 올해 들어와 굴진에 힘을 넣어 100여개의 예비채탄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탄광들에서 굴진과 바도를 앞세우지 않고서는 석탄생산을 늘일수 없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각지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책임일꾼들은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너그러이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대장장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중심개의 탄광들에서 생산능력을 대조성하고 운반제도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단의 위력으로 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고 있다.

북부지구탄광연합기업소아래 남덕탄광과 인포탄광의 굴진공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순환파 진도를 높임으로써 하루굴진실적을 계획보다 훨씬 높이고 있다. 이 곳 굴진공들은 부딪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생산전진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고 있다. 송남청년탄광 3명, 5명 직 동 청 년 탄 광 들 이 1, 4분기 굴진계획을 넘겨 수행한 기세로 매일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이면서 돌격전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안주, 강동, 함남, 은성지구의 탄광들에서도 굴진을 제탄에 확고히 앞세워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고 석탄증산을 계속 높이고 있다.

본사기자 강명철

우고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말에 대장장이 풍부한 3개의 탄광을 새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에 맞 게 탄 광 의 8명 탄 부 들 은 유양된 탄 발을 타고있어 드세한 공작진을 들이대어 지난해 1월과 2월 석탄생산계획을 앞세워 모범을 보였다. 이 곳 탄광들은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탄광에서는 1명에 또 하나의 새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다.

이 곳 일꾼들은 석탄증산을 결성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바도를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남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탄광에서는 굴진을 다그쳐 백수만단의 석탄을 생산할수 있는 성과를 큰 새 탄발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의 일꾼들은 대장장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목표를 높이 세

탄장을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굴진공들을 불러일으켜 현행굴진과 함께 전망굴진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5명, 8명을 비롯한 강동에서는 올해에 대장장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새 탄발을 마련하기 위하여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 곳 굴진공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결의에 넘쳐 막강마당에서 현수천공, 현수발파를 들이대고 있다.

탄광의 일꾼들은 막강이 깊어져 운반거리가 멀어지는 조건에 맞게 기술자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탄부들과의 협의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고 독발기구에 버력처리제동을 새로 건설할 작정을 편지하였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5명과 6명의 당에서 나오는 버력을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되어 증진되는 굴진계획을 2배이상 수행할수 있게 된다. 지금 탄광의 굴진공들은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탄광에서는 1명에 또 하나의 새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다.

이 곳 일꾼들은 석탄증산을 결성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능생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 것만큼 여기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농작물생육예보에 의하면 가을, 보리농사에서는 퇴살이 비로주기와 토양물기보존을 비롯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퇴살이 물을 높이고 초기생육을 강화하며 퇴살이 물이 낮은 곳들에서 포기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겨울나이가 절되지 않아 빈포기가 생긴 포전에서는 포기밀도가 높은 부분의 포기들을 옮겨거나 생육기간이 짧은 출중으로 덧피리기를 하는 것이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김진명 찍음

생 명 선

얼마전 내가 석탄증산투쟁으로 들끓는 북부지구탄광연합기업소아래 인포탄광에 대한 취재를 할 때였다. 3명, 5명 직 동 청 년 탄 광 의 이 한 막강에 들어서니 첫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글발이었다.

《석탄전선은 주체공업의 생명선!》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겨 수행하며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이 곳 탄부들이 전투속보판에 큼직하게 써붙인 글발이었다. 그 글발을 굿어보면 바라는 나의 생각이 들어갔다.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

하여 우리의 힘에 대한 긍지, 강성대국의 메달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오르게 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룩되었는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료...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마련된 주체회의의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제개발투쟁의 높은 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전진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 데서 공업의 식량인 석탄증산을 책임진 탄부들의 어깨는 대단히 무겁다. 석탄산이 높아져야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비료, 주체비료... 강성대국으로 질풍처럼 내달리는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의 꿈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온 나라 탄부들의 결사투쟁의 정신, 애국적헌신성으로 하여 석탄전선은 불도거나 마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수천척지막막마당에서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미더운 탄부들이 있어 주체공업의 생명선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라 하는 확신이 나의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다.

본사기자 김충성

썩피우기는 썩피우기장에서 진행하는데 기계로 직파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14~20°C, 습도 80~90% 조건에서 싹을 짧고 튼튼하게 피워야 한다.

감자종자를 손으로 파종하는 경우에는 온습도조건을 알맞게 보장해주고 썩이 나오면 심는 것이 좋다.

썩피우기를 밭에서 처리장을 만들고 하는 경우에는 맹종피해가 없는 양지바른 곳에 20~30cm 깊이로 모판구멍을 파고 땅기차단재료를 깔 다음 감자알을 피우고 배수를 띄우며 밭에는 2층막과 나뭇잎의 썩을 피운다.

밭에서 썩을 띄울 때에는 먼지 방 안에서 썩을 띄우고 썩이 든 감자종자를 밭에 만든 모판에 내다 적용시키며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전철주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대성산혁명렬사를 참관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현선생님의 묘, 아버지이신 김경직선생님과 어머니이신 강만석선생님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

관에 참관하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력사의 고향집터에 들어서면 그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혁명적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인사를 드리었다.

렬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4월 상순까지 밀, 보리, 감자비배관리대책

본말, 보리농사에서는 썩어나오는 물을 높이고 빈포기없애기를 하여 평일 포기수와 생육초기영양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지에서는 절되지 않아 빈포기가 생긴 포전에서는 포기밀도가 높은 부분의 포기들을 옮겨거나 생육기간이 짧은 출중으로 덧피리기를 하는 것이

본말, 보리농사에서는 썩어나오는 물을 높이고 빈포기없애기를 하여 평일 포기수와 생육초기영양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지에서는 절되지 않아 빈포기가 생긴 포전에서는 포기밀도가 높은 부분의 포기들을 옮겨거나 생육기간이 짧은 출중으로 덧피리기를 하는 것이

본말, 보리농사에서는 썩어나오는 물을 높이고 빈포기없애기를 하여 평일 포기수와 생육초기영양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지에서는 절되지 않아 빈포기가 생긴 포전에서는 포기밀도가 높은 부분의 포기들을 옮겨거나 생육기간이 짧은 출중으로 덧피리기를 하는 것이

몽골 대통령 특사일행 도착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통령대외정책고문인 리. 부대부원 몽골 대통령 특사와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요 몽골 투명전대사자 등이 맞이하였다.

이날 공화국정부에서는 몽골 대통령 특사일행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실 능 군 분 조 장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실 능 군 분 조 장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2차 2분조 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실 능 군 분 조 장을 책임진 주인단은 자각과 성실한 노력으로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분조원들을 이끌어가는 성실한 분조장이다.

그는 잔전 일본세를 지니고 해마다 농사준비를 착실하게 하여 정교한 수습의 질 좋은 거름을 내고 있다.

본말, 보리농사에서는 썩어나오는 물을 높이고 빈포기없애기를 하여 평일 포기수와 생육초기영양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지에서는 절되지 않아 빈포기가 생긴 포전에서는 포기밀도가 높은 부분의 포기들을 옮겨거나 생육기간이 짧은 출중으로 덧피리기를 하는 것이

후대들을 위한 순결한 마음

조국땅 어디서나 아름다운 소행들이 꽃피어 꽃피는 속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혜산, 백일철도분구, 련치상무대 청년동맹원들이 지난 30년동안 소문없이 수백명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삼지거시기, 정일봉총학교, 소학반과 백일철의 유령소학교, 분교의 신입생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있을 제지르며 땀어간 절길로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통학열차를 달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산간마을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열차를 마련해주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그 소식이 접한 혜산철차승무대의 한 처녀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받을 대를 이어 같이 견뎌갈 순결한 마음을 담은 통학열차장이 되었다. 차장이 된 후 그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하고 해마다 토끼를 길러 거시기로 낚는 일과 함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백암군 유령소학교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있을 제지르며 땀어간 절길로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통학열차를 달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산간마을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열차를 마련해주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그 소식이 접한 혜산철차승무대의 한 처녀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받을 대를 이어 같이 견뎌갈 순결한 마음을 담은 통학열차장이 되었다. 차장이 된 후 그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하고 해마다 토끼를 길러 거시기로 낚는 일과 함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백암군 유령소학교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있을 제지르며 땀어간 절길로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통학열차를 달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산간마을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열차를 마련해주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그 소식이 접한 혜산철차승무대의 한 처녀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받을 대를 이어 같이 견뎌갈 순결한 마음을 담은 통학열차장이 되었다. 차장이 된 후 그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하고 해마다 토끼를 길러 거시기로 낚는 일과 함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백암군 유령소학교에 보내주었다.

래 양 절 기 념 전국농업근로자동구경기대회 진행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기전 전국농업근로자동구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24일 저녁 개막된 이번 통구경기대회는 전국의 도, 군, 권, 경기들에서 우수한 20개 단위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과정에 전마는 통구기술과 고상한 정신도덕적공포를 남겼음이 보여

주었다.

대인방어를 강화하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기, 재미있는 2, 3인길전 등으로 두집성공품을 놓인 정주시 서주협동농장 (남자), 강서지구 보산협동농장 (여자) 선수들이 1등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력투구역 소상정남세전문협동농장, 덕천시 청송협동농장 선수들은 남자통구경기에서, 덕천시 청송, 연주군 내동협동농장 선수들은 여자통구경기에서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메달식이 28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있었다.

우수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기, 우승컵, 메달이 수여되었다.

리명길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격막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경기대회기간에 발휘한 열정과 기백으로 알곡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몽골 대통령 특사일행 도착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통령대외정책고문인 리. 부대부원 몽골 대통령 특사와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요 몽골 투명전대사자 등이 맞이하였다.

이날 공화국정부에서는 몽골 대통령 특사일행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순결한 마음

조국땅 어디서나 아름다운 소행들이 꽃피어 꽃피는 속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혜산, 백일철도분구, 련치상무대 청년동맹원들이 지난 30년동안 소문없이 수백명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삼지거시기, 정일봉총학교, 소학반과 백일철의 유령소학교, 분교의 신입생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있을 제지르며 땀어간 절길로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통학열차를 달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산간마을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열차를 마련해주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그 소식이 접한 혜산철차승무대의 한 처녀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받을 대를 이어 같이 견뎌갈 순결한 마음을 담은 통학열차장이 되었다. 차장이 된 후 그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하고 해마다 토끼를 길러 거시기로 낚는 일과 함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백암군 유령소학교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있을 제지르며 땀어간 절길로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통학열차를 달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산간마을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열차를 마련해주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그 소식이 접한 혜산철차승무대의 한 처녀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받을 대를 이어 같이 견뎌갈 순결한 마음을 담은 통학열차장이 되었다. 차장이 된 후 그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하고 해마다 토끼를 길러 거시기로 낚는 일과 함께 토끼털의루를 만들어 백암군 유령소학교에 보내주었다.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기전 전국농업근로자동구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24일 저녁 개막된 이번 통구경기대회는 전국의 도, 군, 권, 경기들에서 우수한 20개 단위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과정에 전마는 통구기술과 고상한 정신도덕적공포를 남겼음이 보여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는 자주통일의 앞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백두의 담벽과 의지, 탁월한 전략과 승고한 덕담으로 온 겨레를 손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하기에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민족의 단결과 의지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들은 온 민족이 들고나갈 통일대헌장이다.」
「바다에 등대라기엔 배결이 열리듯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의 앞길을 열리다.」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안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있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고주시고 따르는 남적의 고결한 마음, 그리고서 내놓으신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찬동의 목소리는 참으로 뜨겁고 열렬하다.

얼마전 부산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위원회의 토론회에서 한 제약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은 민족의 통일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민족의 통일운동은 끝까지 이끄실것이며 넓으신 도량과 사랑으로 겨레모두를 통일애국의 광장에 세워주신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집시 없이 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한 언론인은 「민족의 분열사를 놓고볼 때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갈라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깊이 성찰하시며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버치신분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들은 온 민족이 들고나갈 통일대헌장이다.」
「바다에 등대라기엔 배결이 열리듯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의 앞길을 열리다.」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안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어려있는 이 말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실적을 직접 목격한 남북경협의 신뢰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품고있는 간절한 념원이라고 하여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의 거창한 위업을 탁월한 위인을 모시고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만이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휘황한 목표와 뚜렷한 설계도가 있으며 철저한 위인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통일운동의 예제와 오늘에 이어 미래를 내다보며 남북경협이 확신한 진리이다. 하기에 통일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북인민들의 성숙의 메아리는 날로 더욱 높게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장군님은 하늘이십니다
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장군님 손길따라 가는 길만복이 꽃피는 행복의 길
장군님은 오늘이십니다
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장군님 손길따라 가는 길만복이 꽃피는 행복의 길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대화가거부세를 더욱 두터이 드러내주고있다. 며칠전 《개성공단기업협의위원회》라는게 나타난 남조선통일부 차관은 또다시 그 무슨 《태도변화》를 읊으며 우리가 《천안》합침철물사에게 대해 사과하고 《세발방직》를 약속》해야 북남관계가 진전될수 있다고 떠들었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통일부는 《천안》호사건 1년을 계기로 이른바 《원칙에 기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대북정책설명자료》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남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은 조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지만 우리에게 《태도변화와 진정성》이 없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인단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우리가 《천안》호사건 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발자들의 파렴치한 성격이로써 해결될수 없는 문제를 조건부로 내걸고 북남대화의 문을 연체커나 닫아두고있는 반통일적책의 발로이다.

이이 폭로되지만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우리의 거둬들이는 대화노력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상태를 더한층 격화시켜 우리를 아예 보려는 흉계로 남조선호전파들이 조작해낸 모략이다. 합침철물사건이 우리 공화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이라는 남조선 각계와 세계의 향시로는 학자들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조소결과》에 대한 반론들이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략극이 동족대결에 악용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이 사건에 따른 남조선당국의 그 무슨

통할수 없는 《진정성》타령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대화가거부세를 더욱 두터이 드러내주고있다. 며칠전 《개성공단기업협의위원회》라는게 나타난 남조선통일부 차관은 또다시 그 무슨 《태도변화》를 읊으며 우리가 《천안》합침철물사에게 대해 사과하고 《세발방직》를 약속》해야 북남관계가 진전될수 있다고 떠들었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통일부는 《천안》호사건 1년을 계기로 이른바 《원칙에 기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대북정책설명자료》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남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은 조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지만 우리에게 《태도변화와 진정성》이 없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인단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우리가 《천안》호사건 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발자들의 파렴치한 성격이로써 해결될수 없는 문제를 조건부로 내걸고 북남대화의 문을 연체커나 닫아두고있는 반통일적책의 발로이다.

이이 폭로되지만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우리의 거둬들이는 대화노력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상태를 더한층 격화시켜 우리를 아예 보려는 흉계로 남조선호전파들이 조작해낸 모략이다. 합침철물사건이 우리 공화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이라는 남조선 각계와 세계의 향시로는 학자들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조소결과》에 대한 반론들이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략극이 동족대결에 악용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이 사건에 따른 남조선당국의 그 무슨

《5.24조치》는 북남관계를 1년이 되도록 완전히폐쇄상태에 몰아넣어놓았고 이어 일축축발의 전쟁위협까지 몰아왔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여 《책임을 지》기 뉘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남조선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분분한 《천안》호사건의 《해결》을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할수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요즘 그 어느때보다도 대화문제를 입에 많이 올리고있다. 남조선정권자는 《3.1절기념사》라는데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남북대화를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남조선통일부가 발표했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리처에도 갖지 않거 그 누구의 《태도변화》와 《진정성》을 고집하며 저들이 말하는 대화를 스스로 가르막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대화에 대한 진정을 다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집요한 대결소동에도 불구하고 조건없이 그 누구와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이것이 진정성이라면 과연 무엇이 진정성있는것인가.

《천안》호사건을 놓고 그 무슨 《책임을 지》기를 떠들며 대화를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망동은 그들에게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이 깔 들어차있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통할수 없는 《태도변화》나 《진정성》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면해 대화를 통해 대화를 열어주고있다.

《천안》호사건을 놓고 그 무슨 《책임을 지》기를 떠들며 대화를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망동은 그들에게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이 깔 들어차있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통할수 없는 《태도변화》나 《진정성》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면해 대화를 통해 대화를 열어주고있다.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대화가거부세를 더욱 두터이 드러내주고있다. 며칠전 《개성공단기업협의위원회》라는게 나타난 남조선통일부 차관은 또다시 그 무슨 《태도변화》를 읊으며 우리가 《천안》합침철물사에게 대해 사과하고 《세발방직》를 약속》해야 북남관계가 진전될수 있다고 떠들었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통일부는 《천안》호사건 1년을 계기로 이른바 《원칙에 기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대북정책설명자료》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남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은 조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지만 우리에게 《태도변화와 진정성》이 없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인단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우리가 《천안》호사건 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발자들의 파렴치한 성격이로써 해결될수 없는 문제를 조건부로 내걸고 북남대화의 문을 연체커나 닫아두고있는 반통일적책의 발로이다.

이이 폭로되지만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우리의 거둬들이는 대화노력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상태를 더한층 격화시켜 우리를 아예 보려는 흉계로 남조선호전파들이 조작해낸 모략이다. 합침철물사건이 우리 공화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이라는 남조선 각계와 세계의 향시로는 학자들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지 1년이 되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조소결과》에 대한 반론들이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략극이 동족대결에 악용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이 사건에 따른 남조선당국의 그 무슨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가 17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보르포에서 22일째로 진행되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지도부 성원들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35개국 청년조직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련맹의 지난해 사업이 총회되고 올해사업방향이 채택되었다. 일련의 문건들이 채택되었다.

회의는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

향적책동을 준엄히 규탄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전면파괴되고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의 참화가 퍼질지 모를 일축축발의 엄청난 사태가 또다시 조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정책을 준엄히 규탄하면서 미국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군마지역 청상회원군들의 경험은 회의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 각지 청상회원군들은 우선 목표와 앞장거 갈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귀중한 경험을 교환하였다.

회의에서는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비열한 폭압행위

22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의하면 최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경찰과 대학측의 폭압행위가 악랄해지고있다.

지난 11일 경찰당국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하에 등록금인상을 규탄하며 당국의 반값등록금감약투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려는 전국등록금대투쟁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맹》의 신청을 무기한 수신을 내리고 거부하였다.

또한 경찰당국은 리허너저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모략사건의 진상을 감출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천안》호사건 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불순한 소동을 요란하게 벌이고있다. 도처에서 그 무슨 《추모제》나, 《제막식》이나, 《기념식》이니 하는 판데극들이 열리고있다. 《천안》호사건을 《참판》시키는 놀음도 계속되고있다. 지어 국무부 수차례를 내놓아 해외에까지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천안》호사건이라는것은 남조선당국의 유죄하고 이럴것 그 지저러운 조작품으로서 그것을 다시 들고나오는것은 사실 낫것은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뻔뻔스레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리유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천안》호사건을 꾸며낸 저들의 반민족적책임을 가리우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우려 공화국에 넘겨줌으로써 대결책동을 활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합침철물사건이 북남관계에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해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천안》호침몰당시의 군사연습감행사로 공개

24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천안》호침몰당시 북침활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자료가 새로 공개되었다.

사건발생 직후 당국은 총참모부 대안반대 사색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던것임을 백령도 등 군사연습장소에서 일어난것은 군사연습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고집하였다.

하지만 당시 백령도에서 폭발음을 듣고 백색성함을 목격했다는 사건의 진상에서 백령도 북서쪽에 위치한 두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전쟁범죄를 반대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조신반도에 혁명적 불꽃을 불어넣는 창칼정쟁연습을 무조건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 행동계획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11款, 6.25-7.27 남북공동통정회담에 응하여 조선인민의 조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은 새 세계건설의 중요한 요구

오늘 국제적으로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다. 세계는 더욱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협조와 교류가 활발해지고있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있으며 이로 하여 세계평화질서가 엄중히 파괴되고 인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오늘의 세계정치체제와 국제관계의 흐름은 대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결코 허용고수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주권과 결심에 따라 대외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은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활동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나라는 주권이 있고 명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대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주제를 세우지 못하고 큰 나라의 요구와 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으며 자해와 예속의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주성이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종하거나 남이 하라는대로 하다가는 혁명과 건설을 망치게 된다. 이것은 동유럽나라들의 사회주의붕괴에서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대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한 주권과 영토를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해야 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맺어지는 관계이다. 공정한 국제관계와 민족이 자주권을 행사하자면 대외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공통된 지향이며 념념이다. 그 누구의 지배와 예속에 받음이 없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자주적 인민의 본성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그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이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은 뗄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다.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뒷받침하면 인민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부터 옹호고수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행사하자면 대외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대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한 주권과 영토를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해야 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맺어지는 관계이다. 공정한 국제관계와 민족이 자주권을 행사하자면 대외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공통된 지향이며 념념이다. 그 누구의 지배와 예속에 받음이 없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자주적 인민의 본성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그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이다.

불패의 군사강국

방글라데슈 단체 불렛진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8총과 영웅적조선인민공화군장전 79총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현대성유일회에서 21일 기념불렛진을 발행하시였다.

불렛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적을 모시고 《불패의 군사강국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시였다.

불렛진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시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으로 무적필승의 최성애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무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를 제일국가사로 내세우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시였으며 조국을 단군불락의 요새로

대학교육문제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최근 회의에서 언급하시면서 나라의 대학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하시였다.

그는 대학학생들이 대학에서 리론학습만 하면 그러한 지식은 쓸모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대학학생들이 과학기술 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것과 연구소에서의 실습을 통해 새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

이란의무장 알리 아크바르 샤프에하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심랄히 비난하시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방위를 확대하려 하고있느냐고

미국에서의 코란경소각행위를 규탄

이란의무장 대변인이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코란경소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시였다.

최근 미국의 극단적인 그리스도교도들이 코란경을 불태워 버리는 망동을 저지른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이슬람교에 대한 가장스러운 모독행위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단죄

— 수리아와무성이 24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심랄히 단죄하시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여러차례에 걸쳐 가자지대를 공습하여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 파괴하여 이 무성은 그릇을 부당한 침략행위로 락인하였다.

이 무성은 빼앗긴 령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임무를 제정명하였다.

미국의 끝치거리-미군자살자 증대

보도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미북군부사들속에서 자살률이 2배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이 《반테러》의 간판에 걸려놓은 반테러전쟁의 필연적산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세 세기에 돌이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무모한 전쟁을 편이로 도발하였다. 지난해에 걸리반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268명이 목숨을 잃고 3366명이 부상당한것을 비롯하여 전쟁 초기 순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신적압박과 절망감이 싸이 미군부사들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도 날로 보편화되고있다.

특히 전투에 많이 부대건 부

세계적인 식량위기, 식량가격등에 대비하라

세상에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식량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생존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심각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데 큰 지장을 받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식량부족현상이 초래되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기후변화의 후과로 농사가 안되고 국제적인 쌀재고량이 줄어들고있다.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얼마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월의 알목가격지수가 1월에 비해 2.2% 올랐으며 알목가격도 2008년 7월이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부 식량가격이 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흰쌀가격이 방글라데슈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33%나 올랐으며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23%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알목생산이 줄어들고 그 전망이 어두워지자 식량수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식량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일부 아시아나라들이 식량저축량을 늘리고 알목수출을 일시 금지하였다. 그로 인하여 흰쌀가격이 몇배로 뛰어올랐다.

2008년과 2009년에 식량가격상승과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아시아지역에서 만성적인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는 1억명에 달하였다고 전문가들은 식량가격의 불안정과 폭등에 의해 그대와 비슷한 상황이 조성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식량가격등에 대처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있다. 올해에 아세안성원국들과 중국 등 아시아나라들이 비상시에 대비하는 전략적원산지축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조회담도 지난해부터 식량저축규모를 2배로 늘였다.

로씨야는 국내알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 확고한 의지

제혁명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가는 이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연이 반영된 혁명적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라오스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라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가 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고 나라의 통일발전을 이룩하려는 당파적행위를 축하하며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대외장면에서는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지도자 카이손 폼비은 이젠 총비서의 반신상이 세워져있고 라오스인민혁명당 당기와 국기 그리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평화, 독립, 민주주의, 통일, 번영》이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국제노동계급의 수령물인 맑스와 레닌의 초상화와 함께 《맑스-레닌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걸려있었다.

대외장에는 또한 《영광스러운 라오스인민혁명당 만세》라는 구호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적발전을 추동하고 새

태양열에 즈음하여 포스파 리카국민전위당 총비서 움베르토 바르가스 카르보넬이 18일 《만민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은 태양열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해오셨다. 포스파 리카국민전위당의 전체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를 돌이켜본다. 주석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일관하게 구현하시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승리와 사회적인변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1950-1953년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진보와 발전,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불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자신의 정열을 바치시였다. 주석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두터운 건강을 회복하시여 조선의 평화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즈음이라도 불편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참으로 그는 인민적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전 기간 여러 나라 정계, 사회적 인사들에게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기에 세계 각국 인민들은 그이를 만민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평가하여 경모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부강조국건설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총공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해오셨다.

그이의 선군혁명도발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렬히 축하하며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를 돌이켜본다. 주석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두터운 건강을 회복하시여 조선의 평화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즈음이라도 불편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참으로 그는 인민적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전 기간 여러 나라 정계, 사회적 인사들에게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기에 세계 각국 인민들은 그이를 만민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평가하여 경모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부강조국건설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총공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해오셨다.

그이의 선군혁명도발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렬히 축하하며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를 돌이켜본다. 주석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